“靜中 燃燈, 자비 등불로 세상을 밝히다”

도심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정중연등종의 길

불교정중연등종 법인 출범, 나눔의길 박차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기 2569년 4월 비영리 사단법인 ‘불교정중연등종’이 창종을 선언하며 새롭게 첫걸음을 내딛었다. 불교정중연등종 이사장 도심 스님이 법인 출범 이후 첫 공식 사회공헌 행보로 장애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

불교정중연등종(이사장 도심 스님, 안성 연등사 주지)은 4월 23일, 제45회 장애인의날을 맞아 경기도 안성 ‘안성맞춤랜드’에서 열린 안성시장애인단체연합 기념행사에서 장학금과 생활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 도심 스님은 지역의 장애 청소년 6명에게 장학금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3명에게 생활지원금을 직접 전달하며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자비심을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종단 창종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법인은 법당 안에 머무는 불교가 아니라, 거리와 이웃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불교를 지향합니다.”

이날 도심 스님은 단호하면서도 온화한 어조로 법인 설립 철학을 설명했다. 불교정중연등종은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초대 이사장으로 도심 스님이 추대되었다. 법인 이사로는 최병환 동원푸드 대표 등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불교정중연등종은 ‘독거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1인가구’에 대한 후원 및 생필품 지원, 학업장려, 신생아 출산 장려 및 정신계발운동 등을 목적으로 한다. 2월 3일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데 이어 의례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실천의 구체적 모범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중(靜中)은 수행의 깊이를, 연등(燃燈)은 실천의 따뜻함을 의미합니다. 고요히 깨어있되,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법인의 이름이자 길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도심 스님의 삶과 실천에서 비롯되었다. 수행자이자 복지운동가로 30여 년을 살아온 스님은 지역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 등에 천착, 자비행을 펼치고 있다.



도심 스님이 4월 23일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수행 · 실천 일치’ 의미 ‘정중연등’

2월 법인 설립 후 4월 나눔행보

北이탈주민 · 저소득가정 돕기

풍수동문 사회공헌 지속 이끌어

도심 스님의 ‘나눔의 삶’ 투여돼

각계 공로상 등 수상 바탕으로

지역결연 등 활발한 활동 포부

도심 스님의 선행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10월 도심 스님과 불자님들은 죽산면에 위치한 파라밀요양원에서 개최된 ‘효사랑 축제’에 참석해 국제연꽃마을 앞으로 1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당시 도심 스님은 평소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한국군증오비가 세워져있고 베트남 오지의 열악한 교육환경 소식을 듣고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故각현 스님의 뜻에 동참하여 후원금을 기탁했다.

도심 스님의 선행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안성시불교사암연합회에서 활동하며 당시 사암연합회 회장인 칠장사 주지 지강스님을 비롯한 회원스님들과 함께 하나원(북한이탈주민생활관) 퇴소자들을 위한 이불보시를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다. 또 도심 스님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으로 16기와 17기를 역임할 당시 죽산면에 있는 탈북 청소년 정규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 기숙사에 이불보시와 장학금 기부 등 큰사랑을 실천해 당시 황은성 안성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민주평통 위원장으로부터 공로장을 받기도 했다.

특히 도심 스님은 동국대 행정대학원 최고위과정 생활풍수 총동문회(이하 동풍 동문회)를 2019년 4월 조직하고 초대동문회장으로 취임, 지금까지 4대에 걸쳐 총동문회를 이끌며 풍수지리 학문 진작과 함께 나눔 행보를 펼치고 있다.

도심 스님은 2019년 5월 동문회장 취임 후 동국대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으며, 2020년 3월부터 전국사찰 간산과 토론, 현장교수 선임 등으로 동문회 활동을 이끌었다.

특히 스님의 리더십은 학문 공동체 속에서도 이어졌다. 세미나와 각종 활동 마다 사회공헌을 함께 이어온 것이 특징이다. 2023년 제1회 풍수지리 세미나 당시에는 동국대 2000만원, 방송통신대 1000만원 등 장학금을 전달하며 후학 양성에 마음을 쏟았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학술을 넘어, 불교적 가치와 실천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결과 올해 3월 30일 도심 스님은 동풍 동문회 제4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연임되었으며, 이후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힘써오고 있다.

“많은 분들이 불교를 ‘수행의 종교’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수행의 결과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이 ‘사회의 고통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수행은 결국 이웃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데로 이어져야 합니다.”

스님은 올해 4월 9일에는 동풍 동문회원들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배식봉사를 하며 노숙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공양나눔을 진행했고, 4월 17일에는 생필품과 후원 물품을 직접 전달했다. 동풍 제4대 동문회장으로 연임 후 첫 활동이다.

여러 활동 결과 도심 스님은 2023년 ‘동국인의 밤’에서 동국대 총동문회로부터 공로상을 받은데 이어 2024년 12월에는 ’2024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서 문화부문 대상과 국회 교육상임위원장 표창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장도 함께 수상하기도 했다.

불교정중연등종은 창종과 동시에 ‘지역사회 연등운동’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와 사찰이 지속적으로 연계해나간다는 의미다. 각 사찰이 지역 소외계층과 실질적인 후원 및 심리상담, 긴급 돌봄 활동 등을 수행하겠다는 실천 선언이다.

불교정중연등종의 첫 행보는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고 묵직하다. ‘자비의 등불’을 삶 속에 밝히겠다는 결의가 담겼기 때문이다.

도심 스님은 “법인 설립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수행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불교가 지역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는 포부다.

불교정중연등종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그 길을 걷고 있다. 연등 하나 하나에 담긴 자비의 염원이 거리 곳곳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도심 스님은 여전히 ‘고요한 중심에서 타인을 위한 불을 밝히는 연등 수행자’로서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4월 17일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에 물품 전달.



4월 23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에서 불우한 지역민에게 장학금과 생활기금을 전달했다.



2024년 12월 국회표창장을 수여받은 도심 스님.



2024년 4월 열린 제2회 동풍 학술세미나 모습.



2019년 동국대에 동풍 초대회장으로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자비 나눔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사단법인 불교정중연등종

일죽 망이산성 연 등 사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8-37(화봉리 69-1)
TEL (031)674-5765 | FAX (031)674-5769 | Mobile. 010-3714-9351